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질병의 활성도와 혈청 amyloid A의 연관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상윤^{*}, 박민찬, 박용범, 이수곤

목적: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질병활성도는 임상적 지표인 Bath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 Activity Index (BASDAI)와 검사실 지표인 ESR, CRP를 통해 평가하였으나 이들 지표가 항상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혈청 amyloid A는 급성기 반응 단백질의 일종으로 염증성 질환에서 증가하며, 아포지단백의 일종으로 HDL 콜레스테롤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혈청 amyloid A가 질병 활성도 지표로서 유용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여 1984년 제정된 Modified New York criteria에 의거하여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고 추적 관찰중인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환자의 BASDAI를 측정하였고, 동일 시점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적혈구 침강속도(ESR), C-반응단백(CRP), 혈중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측정하였으며, nephelometry 방법으로 혈청 amyloid A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성적: 혈청 amyloid A의 수치는 ESR ($r=0.52$, $p<0.01$), CRP ($r=0.65$, $p<0.01$), 및 BASDAI score ($r=0.43$,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혈청 amyloid A는 다른 임상적, 검사실 지표와 함께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유용한 질병활성도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혈청 amyloid A와 혈중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결절성 다발 동맥염의 임상적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내역, 강은하, 임철현, 김진현, 신기철, 최효진, 이정찬, 이윤중, 이은봉, 송영욱

목적 및 방법: 결절성 다발 동맥염은 소동맥 혹은 중간크기 동맥을 침범하는 전신 과사성 혈관염의 일종으로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결절성 다발 동맥염의 임상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결절성 다발 동맥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27명 중, 남자 17명, 여자 10명(성비 1.7 : 1)이었고, 평균 연령은 45.5 ± 15 세였다. 임상증상은 근골격계 증상(16 ; 59.2%)과 피부반점(12 ; 44.4%), 복통(10 ; 37%), 발열(9 ; 33.3%), 체중감소(9 ; 33.3%)순으로 호발하였고, 혈액학적 검사는 ESR > 40 mm/hr은 12명(44.4%), CRP 양성은 13명(48.1%), WBC $> 12,000$ 은 8명(29.6%)이었다. ANCA는 27명 중 3명(11%)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HBs Ag, HBs Ab는 각각 2명(7.4%), 14명(51.8%)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활동성 B형간염과 연관되어 발병한 예는 없었다. 18명(66.6%)은 조직 생검에서 양성이고, 3명(11.1%)은 혈관 조영술에서 양성, 5명(18.5%)은 두 검사 모두에서 양성이었다. 장기별로는 말초신경이 12명(44.4%), 신장 9명(33.3%), 고환 5명(18.5%)순으로 침범하였고, 고환염은 남자환자 17명 중 5명(29.4%)으로 외국의 보고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치료는 prednisolone + cyclophosphamide로 치료한 예가 11명(40.7%)이고, prednisolone으로만 치료한 예는 10명(37%)이고, 6명은 그 외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 한국에서의 결절성 다발 동맥염의 임상양상은 외국의 보고와 대부분 비슷하였으나, 고환염의 빈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